

이수화학, 광 PCB 개발사업 참여

자회사 이수페타시스 통해 ... 전자부품연구원 과제 수행자로 선정

인쇄회로기판(PCB) 생산기업인 이수페타시스는 최근 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정보통신진흥연구원 산하 전자부품연구원(KETI)이 공모한 <고속 대용량 정보 처리용 광(光)전배선 모듈 개발(Optical PCB)> 과제 수행자로 선정돼 개발사업을 3년간 전개한다고 1월24일 발표했다.

광PCB는 구리회로로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기존방식과는 달리 기판 내에 광섬유 등을 내장해 전기적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해 전송하는 차세대 기판기술로 전송속도나 회로밀도, 누전 등 기존 PCB의 한계를 넘어 초소형 및 고기능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이수페타시스 김용균 사장은 “고속 대용량의 정보처리가 요구되는 네트워크 장비 양산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광PCB의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7년에는 세계적으로 1조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05/01/25>